

# 대법 “주주평등원칙 어긴 계약, 개인간에는 당연무효 아냐”

### “개발 실패할 시 투자금 전액반환” 계약 2심서 “주주평등원칙 어겨” 투자자 패소 대법 “임원 상대 계약은 다시 판단” 파기

회사의 자본금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계약이라해도, 회사 임원 등 개인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와 의무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업 대법관)는 투자자 3명이 A사와 그 대표, 연구담당 책임자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사에 대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다만 대표와 연구 책임자에 대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A사가 연구 개발 중인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에 대해 2019년 10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품등록을, 같은 해 12월까지 조달청에 조달등록을 하되, 기한내 등록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자 계약을 A사, 대표

와 체결했다. 연구책임자는 여기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했다.

원고들은 이 계약 체결에 앞서 A사의 다른 주주들에게 해당 계약의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A사는 해당 제품을 실제로 기한내에 등록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며 2020년 1월 이반 소송을 냈다.

2021년 12월 1심은 계약 내용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이 기존 주주들 전원의 동의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심은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내

용은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조항은 원고들의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표·연구책임자와 맺은 계약 부분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법원은 A사에 대한 부분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일부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이 사건 계약 내용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사회상규나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차등적 취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표·연구책임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이사 등 개인과 맺은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투자자들과 대표·연구책임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당연히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표와 연구책임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각각 부담하게 될 투자금 반환 의무의 성격을 밝혀서, 그 존재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유나 기자



‘폭염엔 물놀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3일 오후 대구 달성군 워터파크 스파밸리를 찾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악취민원 힘들다” 돼지 농장주 극단선택...한돈업계 추모

### 4차례 민원...지난달 21일 보성 양돈 농장주 숨져

악취 민원을 받은 전남 보성 한 돼지농가의 농장주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양돈업계의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양돈 농가들도 비슷한 악취 민원 고충을 호소하며 “규제 속 축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오는 16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 숨진 양돈 농가 농장주 A씨를 기리는 추모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돼지 축사에 대한 악취 민원은 올해 5월 말과 지난달 10일·18일·21일 총 4차례에 걸쳐 보성군에 접수됐다.

A씨는 민원 접수에 따라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받았다. 군은 농가에서 심한 악취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반복된 민

원을 고려해 A씨에게 냄새 저감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원이 제기된 지난달 21일 군청 관계자와 통화를 마치고 농가 인근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당시 그는 반복된 민원에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긴 유서엔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민원제기로 너무나 힘들다. 주변 주민분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의 죽음을 두고 양돈 농가들도 민원 고충에 공감하며 애도했다.

대한한돈협회 누리집 추모란에는 ‘산업을 보호하고 주민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고인의 명복을 빌다’, ‘저희 농가도 몇 대 째 돼지농장을 운영하는데 악취 민원으로 힘들다. 매일 민원 걱정을 하며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글이 적혔다.

대한한돈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돈산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소중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이나 늘어나는 냄새민원과 행정규제로 인해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무리한 규제로 생을 저버리는 상황을 두고 전국 한돈 농가들은 깊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보성군 웅치면에서 축산업을 시작한 A씨는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을 역임했다. 그의 농장은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농림축산식품부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으며 지역 한돈산업계에서 모범 농가로 꼽히기도 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 광주·전남서 차량화재 잇따라...“기계적 요인”

### “냉각수 등 점검, 장거리 운행 땀 중간휴식 꼭 필요”

광주·전남에서 엔진 과열 등에 따른 차량 화재가 잇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2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소나타 차량에 화재가 발생, 10여 분만에 진화

됐다.

이날 불로 엔진룸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전남 오후 7시46분께 전남 여수시 오천동에서도 2012년식 차량에서 불이 나 엔진룸을 비롯해 차량 전체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4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도 기계적 요인으로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관계자는 “여름철 차량 화재의 상당 부분은 기계적 요인, 특히 오일·연료 누설이나 과열, 자동제어 실패로 인한 것”이라며 “냉각수 점검 등을 꼼꼼히 하고, 장거리 운행 시에는 휴게소에 들러 엔진을 최소한 10~15분 가량 식히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